

		보 도 자 료		JEONJU IFF
배포일	2026. 5. 11	보도 요청일	2026. 5. 11	
담 당	홍보미디어팀	취재 문의	1899-5433 (홍보미디어팀: 4번) publicity@jeonjufest.kr	

‘우리는 늘 선을 넘지’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

- 폐막작 <남태령>과 함께한 축제의 마지막 순간
- 443회 매진·좌석 점유율 82.3% 기록
- 가능한 영화 신설·전주프로젝트 성과까지... 영화의 확장성 확인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 아래 4월 29일(수)부터 5월 8일(금)까지 10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영화제는 총 5개 극장 21개 관에서 54개국 236편의 작품을 610회 상영했으며, 269회의 프로그램 이벤트를 통해 국내외 게스트 754명이 관객과 만남을 가졌다.

관객 수는 69,490명, 좌석 점유율은 82.3%를 기록했다. 전체 610회 상영 가운데 443회가 매진됐으며, 차이밍량·마이크 피기스 감독의 마스터클래스와 영화로의 여행 등 주요 프로그램 이벤트 역시 예매율 90%를 웃돌았다.



△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식



△ 폐막식 사회자

5월 8일(금)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진행된 폐막식을 끝으로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공식 막을 내렸다. 폐막식에서는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대한 감사와 함께 내년 제28회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며 축제의 마무리를 함께했다.

폐막식에는 폐막작 <남태령>의 김현지 감독과 출연진이 참석했다. 김현지 감독은 앞서 진행된 폐막작 기자회견에서 “그때 남태령을 만났고, 여기에서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구나,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라며 작품의 출발점을 전했다. 작품 속 현장에서 노래를 불렀던 진주 노래패 맥박은 폐막 공연을 선보이며 영화의 여운과 현장감을 더했다. 또한 지난 5월 5일(화) 시상식에서 한국경쟁 대상을 수상한 <흘러보낸 여름>의 이선연 감독을 비롯한 수상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폐막작 <남태령>



△ 폐막공연 진주 노래패 맥박

22개 섹션, 다채로운 발견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국제경쟁·한국경쟁·한국단편경쟁을 포함한 18개의 공식 섹션과 4개의 소섹션을 선보였다. 상영작 236편 중 월드 프리미어 77편,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1편, 아시안 프리미어 55편, 코리안 프리미어 57편이 포함되어 신작 중심의 구성을 이어갔다.

지난해 ‘특별전: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에 대한 관객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 정규 섹션 ‘가능한 영화’를 신설했으며 예매율 90%를 넘기며 대안적 영화 제작에 대한 관객들의 꾸준한 관심을 확인했다. 또한 ‘특별전: 조금 낯선 안성기를 만나다’를 통해故 안성기 배우를 추모하고 재조명의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스페인 영화의 혁신가 페라 포르타베아 100세를 기념하여 ‘게스트 시네필’에서 그의 영화 5편을 상영했다. 이 외에도 영화로의 여행, 전주톡톡, 라이브 필름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가 마련됐으며, 영화는 물론 여러 분야의 게스트들이 관객과 만남을 이어가며 한층 다채로운 구성과 경험을 선보였다.



△ 가능한 영화
<많다, 말이> GV



△ 특별전: 조금 낯선 안성기를 만나다
<부러진 화살> GV

제작 지원의 성과가 영화제 수상으로

제18회 전주프로젝트는 193명의 영화산업 관계자가 참여해 248회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이번 전주프로젝트는 총 270편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전주랩 8편, 전주랩·단편 2편, 워크인프로그레스 5편이 선정되었고, 시상식에서 11개 부문 18개의 현물·현금 지원이 이루어졌다.

올해는 전주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영화들의 성과가 특히 돋보였다. 전주랩 및 K-DOC CLASS 출신 김면우 감독의 <회생>이 한국경쟁에서 심사위원특별상과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으며, 전주시네마프로젝트로 선보인 김용천 감독의 <리틀 라이프>도 역시 같은 지원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워크인프로그레스 선정작 중 이상문 감독의 <주름>은 배급지원작으로 선정돼 500만 원의 배급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제작지원작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 전주프로젝트
<리틀 라이프> GV



△ 제18회 전주프로젝트
배급지원금 수상 <주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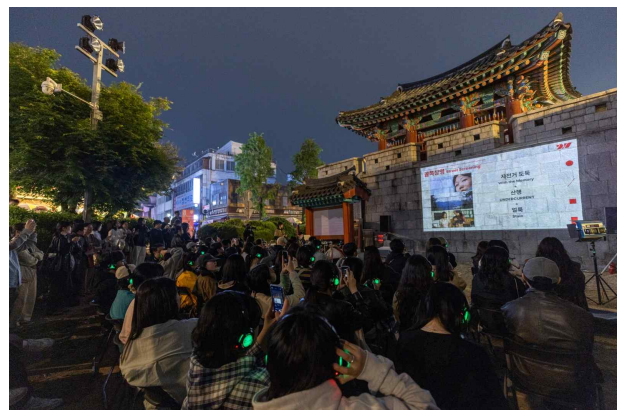
관객과 함께한 10일

영화제 기간 개막일부터 첫 5일간의 중간 집계에서 연휴 효과로 좌석 점유율이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약 3% 증가했다. 굿즈샵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으며, 아침부터 오픈런 대기 행렬이 이어지고 최대 120명이 줄을 서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와 이벤트도 관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전주국제영화제만의 낭만이 가득한 골목상영은 매년 관객들의 관심이 높아져 더 많은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 운영했으며, 총 4,175명의 관객이 함께했다. 풍남문에서 진행된 골목상영에서는 무선 헤드폰을 도입해 야외상영 환경도 개선했다.



△ 굿즈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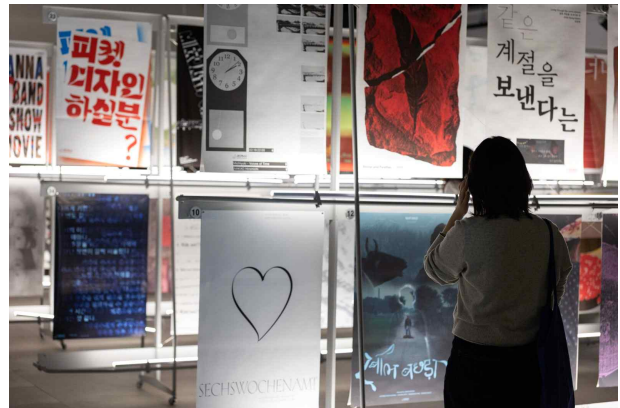
△ 골목상영 (풍남문)

전라감영 서편부지에서는 주말 동안 아웃도어시네마가 진행되었으며, 텐트 좌석을 운영해 체험형 야외 관람 환경을 구현하고 총 1천여 명의 관객이 함께했다. 관광거점도시 전주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함께한 <슈퍼 마리오 갤럭시> in 전주는 영화의거리와 한옥마을 경기전에서 진행되었으며 팝업과 포토존, 야외상영과 OST 공연까지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보였다.

올해 12회를 맞이한 100 Films 100 Posters는 문화공판장과 영화의거리에서 진행되었으며, 작년에 첫선을 보인 살롱 프로그램은 예매 오픈 즉시 매진 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문화공판장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5월 17일(일)까지, 신세계면세점 본점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월 전시는 6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 <슈퍼 마리오 갤럭시> in 전주



△ 100 Films 100 Posters

영화의거리에서는 농심 신라면 팝업과 더불어 기업들의 체험 이벤트가 진행되어 영화제를 찾은 관객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신라면 40주년 영화 제작·상영과 후지필름 제작 영화를 2년 연속 선보이는 등, 기업들은 영화를 매개로 단순 홍보를 넘어 브랜드의 서사와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의 협업을 실현했다. 이는 영화제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축제 협업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았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자리를 넘어, 영화가 머무르고 이어지는 공간이 되었다. 차이밍량 감독은 행자 시리즈의 촬영지로 '전주'를 택했고, 새롭게 신설된 '가능한 영화' 섹션 역시 관객들의 호응 속에 영화제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매김했다.



△ 영화의거리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처럼, 전주국제영화제는 올해도 전주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했다. 그 시간을 함께한 관객들과의 기억을 안고, 전주국제영화제는 내년 봄 제28회 전주국제영화제로 돌아올 예정이다.